# “후마의 정체성 다시 세우는 것이 첫 과제” 11년 만에 선임된 이한구 신임 대학장

권도연 기자 khudy94@khu.ac.kr




이한구 대학장은 “청운관 앞 청운종각에 새겨진 경희의 8개 지침 중 첫 번째인 삼정행(三正行)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삼정행 인증제를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권도연 기자)

## 인터뷰–신임 후마니타스칼리지 대학장

# 미래문명원 이한구(철학) 석좌교수가 지난달 8일 후마니타스칼리지(후마) 대학장에 취임했다. 2015년 도정일 초대 대학장 사임 이후 11년 만의 선임이다. 우리신문은 신임 대학장을 만나 앞으로의 후마 운영 방향에 대해 물었다.

**Q. 11년 만에 후마 대학장직에 임명됐다. 소감과 대학장의 역할은?**

중요한 직책을 맡게 돼 책임감을 느낀다. 대학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AI 시대의 교양교육을 재설계하는 일이라 생각한다. AI가 제공하는 정보를 비판적으로 판단하고, 새로운 문제를 정의해 해법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핵심 역량이 돼야 한다. 대학장직이 다시 필요해진 것은 후마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누적돼 있고, 이를 풀기 위한 양 캠퍼스 후마의 협력과 유기적 통합이 더욱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Q. 그간 미래문명원에서 지켜본 후마의 성과와 과제는?**

후마는 설립 당시 “한국을 대표하는 교양교육 모델을 만들었다”는 찬사를 받았고, 많은 대학이 벤치마킹할 만큼 성과를 냈다. 그러나 AI 혁명으로 시대 상황이 바뀌고 있는 만큼 다시 한번 중흥이 필요한 시점이다.

**Q. 대학주보의 창간 71주년 특별기획 「후마니타스 15년을 묻다」에서 제기한 과제들은 어떻게 봤나?**

9회에 걸친 기사를 모두 읽었고 많은 부분 공감한다. 간단히 해결될 문제도, 깊은 논의가 필요한 문제도 있다. 그리고 후마 단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고, 본부와 협의해야 할 문제도 있다. 향후 후마 교수뿐 아니라 교내 다른 단과대, 그리고 외부 대학의 교양교육 관련 교수까지 포함된 ‘후마 혁신위원회’를 구성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려고 한다. 그리고 대학 본부와의 협의를 통해 최대한 빠르게 해결하려 한다.

**Q. 철학자로서 생각하는 교양이란 무엇인가?**

철학적으로 교양은 자유학예(Liberal arts)나 형성(Bildung)의 의미로, 단순한 지식 습득이 아니라 인간이 자기 자신을 형성해 가는 전 과정을 가리킨다. 근대 연구 중심 대학의 모델인 베를린 대학을 설계한 빌헬름 폰 훔볼트는 직업 훈련이 아닌 자유로운 인격 형성을 대학의 이념으로 삼았고, 이것이 오늘날 교양교육 이념의 원형이 됐다. 교양과 전공을 바라보는 패러다임은 상식과 전문, 기초와 심화 두 가지다. 전자에서 교양은 본 게임 전 몸풀기에 불과하지만, 후자에서는 학문의 핵심기초역량을 기르는 영역이 된다. 후마는 설립 때부터 후자를 추구해 왔고, AI 시대 그 필요성은 더 커지고 있다.

**Q. AI 시대 교양교육이 지켜야 할 가치와 바꿔야 할 부분은?**

AI는 답을 빠르게 주지만, 좋은 질문을 던지고 답의 진리 여부를 판단하며 결과에 책임지는 일은 여전히 사람의 몫이다. 이런 사람을 길러내는 것이 교양교육의 핵심 가치다. 정보가 거의 무한히 공급되는 환경에서는 무엇을 받아들이고 버릴지, 무엇이 중요한 문제인지 가려내는 능력이 핵심이 된다. 전문 기술의 수명은 짧아지지만 논증하고 학습하는 방법은 어떤 변화에도 적용되는 기초역량이다. 여기에 AI 문해력, AI 윤리 같은 새로운 소양을 더해야 한다. AI를 도구로 자유자재로 쓰되, 사고의 과정만큼은 외주를 줘서는 안 된다.

**Q. 서울과 국제 양캠에서 같은 교육 철학을 바탕으로 후마를 운영하고 있지만, 그간 주요 사안을 둘러싸고 양캠 논의가 엇갈리기도 했다. 대학장이 생각하는 ‘하나의 후마’는 어떤 모습인가?**

후마는 어떤 전공을 선택하든 단순히 전공교육에 진입하기 전 예비교육의 개념이 아닌, 누구나 거쳐야 하는 핵심기초역량 교육이다. 인문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이 지나치게 분화돼 소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세부적인 문제에서는 양캠의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지만 ‘하나의 후마’ 이념은 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다.

**Q. 후마 교육에 맞는 평가방식은?**

무조건 좋은 평가방식은 없다. 상대평가는 성취 목표를 달성한 학생에게도 비율에 얽매여 낮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고, 절대평가는 학점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다. 토론과 성찰을 강조한다고 해서 반드시 특정 평가방식으로 가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절대평가로 가기 위해선 학점 인플레나 낮은 학습 열기를 방지할 정교한 평가 기준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 후마 교수님들과 이를 심도 있게 논의해 해결책을 곧 마련하겠다.

**Q. 대학장 업무를 시작하며 우선 추진하려는 과제는?**

후마 정체성 재정립이다. 경희의 기초교육을 담당하는 후마라면 나름의 교육철학을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 개인적으로 ‘삼정행(三正行) 인증제’를 구상하고 있다. 청운관 앞 청운종각에 새겨진 경희의 8개 지침 중 첫 번째가 바른 앎(正知), 바른 판단(正判), 바른 실천(正行)의 삼정행이다.

이를 현대적으로 해석한 세 가지 인증을 생각하고 있다. 핵심기초역량과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학생에게는 리더십 인증, AI 윤리를 지키며 AI를 능숙하게 다루는 학생에게는 AI 인증, 이중언어 능력과 인류공동선의 실천 능력을 기른 학생에게는 세계시민 인증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삼정행은 ‘인간다움의 완성’이라는 후마의 이념과 부합하고, 우리 시대가 경희에 요구하는 인간다움이 각 분야의 리더, AI 전문가, 세계시민으로 나타난다고 본다. 물론 공론화를 거쳐 합의를 이뤄야 구체화될 것이다.

**Q. 대한민국학술원 회원이다. 학술원은 어떤 곳인가?**

분야별 한두 명의 원로 학자들로 구성된 국가기관으로, 우리나라 학계를 대표해 해외 학술원과 교류하며 인류의 난제를 함께 연구한다. 최근 높아진 ‘K-학술’에 대한 요구에 대응하는 연구도 하고 있다. 향후 학술원과 협력체제를 구축해 원로 학자들을 후마 특강과 세미나에 초청할 계획이다.

**Q. 학생 의견 수렴 방안과 학생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학생들은 단순 지식 전달 대상이 아닌 진리를 함께 탐구하는 학문 공동체의 동료다. 이들의 의견을 최대한 경청하고 수용하겠다. 다만 학문공동체가 발전하려면 공동의 목표와 전통, 앞선 경험자의 지혜도 필요한 만큼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학생들의 성취가 최대한 이뤄지도록 하겠다. 학생들에게는 눈을 크게 뜨라고 말하고 싶다. 우리 사회는 ‘빠른 추격자’로서 근대 사회를 만들었지만, 이제는 ‘앞선 선도자’로서 인류 문명을 이끌며 우리의 전통과 유산도 챙겨야 한다. 경희의 젊은이들이 이 사명을 잊지 않길 바란다.